



Market Index / 27일

코스피지수 ▲ 2031.20 +1.42	코스닥지수 ▼ 724.59 -4.52	유가(WTI, 달러) ▲ 34.35 +1.10	환율(원)	1USD 1257.63 100¥ 1169.56	팔매 1214.37 1129.34	살매 1383.31 180.99	팔매 1329.33 163.77
--------------------------	-------------------------	------------------------------	-------	------------------------------	-----------------------	----------------------	----------------------

기후 변화 등에 해조·패류 생산량 '뚝'

호남지방통계청 10년간 제주어업구조 변화상 발표
우뭇가사리 82% 감소 해녀 수입원 소라 30% 줄어
어촌 고령화 추세 뚜렷 70대 이상 경영주 50% 증가

기후 변화와 제주연안 오염 등으로 제주바다 패류·해조류 생산량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최근 10년간(2010~2019년) 제주어업구조 변화상'에 따르면 2019년 제주도 소라 생산량은 1664t으로 2010년 2466t 대비 802t(-32.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뭇가사리 생산량은 599t으로 2010년 3455t 대비 2856t(-82.7%) 감소했고, 톳 생산량은 266t으로 2010년 822t 대비 556t(-67.6%)이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갈치 생산량은 2만1281t으로 2010년 2만0472t 대비 809t(4.0%) 증가했다.

또 제주도 고등어 생산량은 2984t으로 2010년 2195t 대비 789t(35.9%) 증가했다.

전해 양식어업 생산량도 늘었다. 넙치류 생산량은 2만2445t으로 2010년 2만1367t 대비 1078t(5.0%) 증가했다. 다만 돌돔 생산량은 67t으로 2010년 373t 대비 306t(-82.0%)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어가 수와 어가인구 수도 각각 25.0%, 37.4% 줄었다.

2019년 제주도 어가 수와 어가인구는 4046가구·9123명으로 2010년 대비 1347가구(-25.0%), 5450명(-37.4%) 감소했다.

어촌인구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원수별 어가 수를 살펴보면 1~2인 가구가 72.1%, 3인 이상 가구 27.9%를 각각 차지했다.

제주도의 어가 경영주는 70대 이상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대가 32.3%를 차지했다.

2019년 70대 이상 경영주 어가 수는 1783가구로 2010년 대비 594가구·50.0%나 증가했다.

제주도 어업 총생산량은 8만 7994t으로 2010년 대비 7252t(9.0%) 증가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5월 양회와 양신일중

중국 최대 정치행사 투자가 관심 집중

매년 3월이면 중국은 국가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양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양회가 연기되면서 지난 21일 예야 개막했다. 중국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통칭 정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통칭 전인대를 합쳐 양회라고 부르는데 양회를 통해서 법률 및 중대한 사항들이 결정돼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들도 주시하는 행사이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올해 중요 목표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이런 내용을 해석해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미제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게 보고 신중한 접근을 취해 내부에 발생한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9·11테러 당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던 시기에도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고 내부에 집중하던 때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면서 대형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도시지역 취업자 수 목표치를 기존보다 낮추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만큼 공격적 경기 부양을 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번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양신일중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국내 5G 종목·신 인프라 투자기업 기회 홍콩 강경기조 세계 증시 약세 전망도

6.8%를 기록한 가운데 전에 제시한 최소 5.5%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 평균 성장률이 9.9%가 돼야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인민대회 개막식에서는 정부업무보고서 발표를 담당할 리커창 총리가 18년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올해 중점 목표로 고용 시장 안정화 정책과 탈빈곤 정책을 가장 먼저 발표하고, 도시 지역 기준 신규 취업 900만명과 실업률 6%란 구체적 고용 목표를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안정화 시킬 의지를 보였다.

둘째로 총 11조 위안 규모의 재정정책을 발표하고 재정적자율을 0.8%p 상향하는 한편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구도심 재개발 등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적으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위기에 대응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형 인프라투자, 신형 도시화인 양신과 교통 수리 등 대형 인프라 투자를 의미하는 의중을 말했다. 이는 도시화를 통해서 소비를 부양하고 신형, 구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고용 및 생활 증진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책 방향은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양신일중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 발표됐으며 이는 국내 5G 관련 종목들과 신인프라 투자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양회에서 홍콩에 대한 강경기조가 더욱 강해졌기에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양회에서 보여지는 기회와 위험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은행 이자보다 못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

코로나19 여파 0.3%대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제주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다른지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27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스피텔 투자수익률은 서울(1.59%), 경기(1.68%), 인천(1.3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으나 제주(0.56%), 경남(0.56%), 강원(0.6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중대형 상가는 서울(1.71%), 경기(1.62%), 인천(1.44%) 등의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제주

(0.33%)와 경남(0.93%), 세종(0.7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천호(2.28%) 상권에서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했으나, 신사역(1.23%), 도산대로(1.19%) 상권 등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투자 위축 등으로 투자수익률은 1.71%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노형오거리(0.40%), 서귀포도심(0.20%) 등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투자수익률은 0.33%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상가인 경우 경기, 서울, 인천 등의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제주(0.25%), 울산, 세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고대리기자 haru@ihalla.com

화장품 원료 개발업체 모집 도·JTP 6월 12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청정자연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2020년 화장품원료개발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원료개발 패키지 기술 지원과 원료개발 품질분석 지원 등 2

개 분야로 나뉜다.

대상은 화장품원료센터에 구축한 장비를 활용해 신규 화장품 원료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제주지역 소재기업은 물론 제주화장품원료센터 협업체 회원사로 등록된 화장품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업은 10개사로,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서 할 수 있다.

백묵탁기자 haru@ihalla.com



어린이 용품에도 가슴기 살균제...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부부세관 5층 대강당에서 가슴기 살균제가 포함돼 적발된 어린이용품들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패 감귤 이젠 비료로 건조·탄화 거쳐 재탄생

부패한 감귤을 건조·탄화시킨 부산물을 토양 비료화하는 기술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부패

감귤 처리기술 관련 과제인 '플라즈마를 이용한 부패 감귤의 자원재생 생태계 구축'이 전국단위 10대 과제 선정돼 27일 행안부-과기정통부-제주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 6억원이 투자되며 부패감귤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N20 60일 공급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상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낮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리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먹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옥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NAVER D2M 코코리 검색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엽면시비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